

북스

어린이 책꽂이



▲소록도 큰할매 작은할매=1960년대 초 소록도에 들어가 한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2005년 편지 한 장 남긴 채 떠났던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아노와 마가렛 누너의 감동적인 실화를 그렸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두 누너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새길 수 있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세밀화 동물도감=1,500여 종의 동물을 사진보다 생생하게 그린 세밀화와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모습을 생생한 세밀화로 표현, 각 동물의 특징을 잘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정확한 설명과 분포도, 단면도 등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예림당·3만원>



▲생각쟁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세상을 움직인 생각쟁이들인 아라키메데스, 카우스, 앙리 무아상, 쿨리 부인,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등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아이디어 착안에 관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자신감 등 생각의 비밀 아주 가치를 재발견의 일화와 함께 소개했다. <뜨인돌어린이·9천원>



▲10원이 황금알을 낳은 경제 이야기=어린이 경제서 베스트셀러인 '10원으로 보이는 경제 이야기'를 오늘날 경제 상황에 맞게 다시 구성해 만든 책이다. 경제가 어려운 때는 회사는 어떻게 건축재정에 들어가고 노동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 경제현상의 큰 흐름을 예들 들어 재미있고 쉽게 설명했다. <영글출판·8천800원>



▲돌 맞은 하마 공맹이=학교생활에서 아픔을 겪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동화작가 정진씨가 일곱 편의 생활 동화속에 요즘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 준다. 그 해답은 '친구와 더불어'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가문비어린이·8천900원>



▲즐거운 모험=양재홍 시인이 등단 15년 만에 펴내는 동시집으로 그동안 발표한 작품을 가운데 56편을 가려 뽑았다. 발랄한 상상력으로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그렸다. 또 자연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시로 담아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섬아이·8천원>



▲별을 쓰는 사람들=우주를 관측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천문대와 망원경 이야기를 비롯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를 관측하는지, 현재 천문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400년 전 갈릴레오가 천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래 천문학의 공금증을 풀 수 있다. <풀빛·9천500원>

▲공부, 억지로 할래 즐겁게 할래=공부가 싫고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위한 '공부 나침반'으로 손에 잡히는 학습법과 맞춤형 학습 전략을 알려준다. 저자는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뿌리야르·8천원>

두바이는 '창조도시'가 아니다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찰스 랜드리 지음



아랍에미리트(UAE) 토후국의 하나인 두바이. 인구 150만명에 불과한 작은 해안도시 두바이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이다. 최초의 7성급 호텔인 '브루지 알 아랍'을 비롯해 21세기의 바벨탑으로 불리는 최고층 빌딩 '브루지 두바이', 가장 넓은 인공섬 '팜 아일랜드', 최대 테마파크 '두바이랜드' 등을 잇따라 준공하며 신화를 써 갔다.

하지만 두바이의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저는 또한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아시안계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두바이의 거대 프로젝트에 따라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지만 이들은 저임금과 체불로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도시의 현상과 미래를 연구해 온 찰스 랜드리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은 두바이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자는 두바이 등 세계 45개국에서 도시전략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이 책에 담았다.

두바이는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외치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저자는 "두바이는 창조도시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창조도시란 시민들이 모이고 참여해서 도시를 살아 있는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곳이다. 건축화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토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재능이 모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그는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 발자국(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을 찍었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줬다.

두바이는 실패한 창조도시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차단했고 시민과 노동자, 새로운 유입인구는 기존의 시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저자는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생기는 균열을 극복하는 '상호문화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파리의 발 푸르 저지대에는 유류서 가장 큰 공영 주택 지구가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 등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실직자이며, 아이들의 학교 결석도 잦다.

이곳에 변화가 생긴 것은 6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라디오 도시의 권리'(radio droit de cite)라는 방송국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들은 다큐멘터리와 전화 상담, 지역 정보, 스포츠,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키운다. 이곳을 거쳐 전국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긴 숫자도 십여명 이 넘는다.

저자는 이곳을 예로들며 "이 시대가 모든 측면에서 세계적이어서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상호 문화에 대한 개념이 중심에 등장한다. 다문화 도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한다.

책은 이밖에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싱가포르가 해부되며, 구겐하임 미술관으로만 알기 쉬운 스페인의 발바오와 바르셀로나가 창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내적인 노력도 보여준다.

또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의 대명사가 된 브라질 꾸리치바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역사넷·2만5천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두바이에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인 '브루지 알 아랍'의 전경.

1억 상금 '살빼기 서바이벌'

다이어트의 여왕

백영옥 지음



'한국형 최림 소설'로 각광을 받았던 '스타일'(제4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의 백영옥씨가 신작 '다이어트의 여왕'을 펴냈다. 올 봄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재돼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주인공은 스물 여덟의 요리사 연두. 3년 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에게서 갑작스레 이별을 통보받은 그녀는 친구 인경이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다이어트의 여왕'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는 최고 몸무게 142kg, 최소 몸무게 74.3kg, 최고 몸무게 142kg을 자랑하는 12명의 여성들. 3개월 동안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빼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은 1억원이다.

미혼출신의 박순옥, 하이힐에 집착하는 송준희 등 다양한 캐릭터들의 등장이 재미있고, 탈락자가 생기는 프로그램 특성상 약간의 긴장감도 동반해 소설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과연 누가 '여왕'이 돼 1억원을 거머쥘 것인가'라는 점이 가장 궁금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이어지는 또 다른 '스토리'도 흥미롭다.

TV 드라마로도 제작중인 '스타일'에서 탄탄한 줄거리와 맛깔스런 글쓰기를 선보였던 저자는 이번 소설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발휘했다. 결말은 인터레 연재 때와 조금 다르다.

<문학동네·1만1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물건들에도 생명이 있다

물건의 재구성

연정태 지음



재활용 디자이너 연정태씨가 합부로 버려지는 물건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방법을 소개한 '물건의 재구성'을 펴냈다.

책은 최근 많이 출간된 '리폼'이나 'DIY(Do-It-Yourself)' 물건 만드는 법을 소개한 여느 책과는 달리 물건에도 생명이 있다는 철학과 재활용 경험담을 따뜻하게 담아낸 에세이 형식이다.

저자는 쓰이지도 않을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조금만 유행이 지나도 멀쩡한 물건을 회수 내던지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생명이 없는 물건이라고 합부로 다루는 사람들은 대개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는다.

그는 인간이 존엄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거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물건의 일생에도 권리가 있다며 "생(生),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을 권리, 노(老), 존중받으며 사용될 권리, 병(病), 합부로 버려지지 않을 권리, 사(死), 제대로 버려질 권리."라는 '물건 권리장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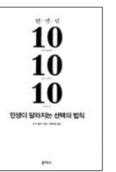
빨간색의 고깔 리버론으로 만든 쓰레기통과 플라스틱 의자로 만든 아기 그네, 무엇이든 걸 수 있는 옷걸이 등 멋스럽고 실용적인 그만의 재활용 물품도 소개했다.

작품마다 다양한 사진과 설명을 곁들여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리디스하우스·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란?

10-10-10...

수지 월치 지음



제너럴 일렉트릭 CEO 출신 책 월치는 성공한 기업인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는 '위대한 승리', '승자의 조건' 등 저서를 통해 자신의 경영 철학을 밝히고 동시에 인생에서 승자가 되는 법을 역설했다.

책 월치의 결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 출신으로 책 월치와 함께 '위대한 승리' 등을 집필한 아내 수지 월치다. 수지 월치가 펴낸 '10-10-10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은 스스로 선택하는 주제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법'을 소개하는 글이다.

책에서 말하는 '10-10-10'은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뜻한다.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당황하지 말고 차근 차근 일정한 기간 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10분 후는 바로 지금, 10개월 후는 예측가능한 미래, 10년 후는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에 개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책에는 갑자기 들이닥친 선택으로 당황해하거나 실의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담겨 있다. 저자는 수많은 인터뷰와 오랜 연구를 통해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을 제공하고 있다. 배유정씨가 번역했다.

<북하우스·1만3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분할공고
(채권자의 의무 준수제출공고)
본 회사는 2009. 7. 15. 주주총회에서 그 영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파인포레스트 설립하고 본회사는 존속하며, 주식회사 파인포레스트는 본 회사의 재무제표 연대책임자로 하였습니다.
그에 수반하여 본 회사는 보유할 주식 1주당 0.83주씩의 비율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1,500,000,000원에서 255,000,000원으로 감자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이일부러 1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주주는 본회사가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표함.
2009년 07월 18일
주식회사 파인포레스트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76-2
대표이사 정복근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9. 07. 15.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9년 09월 1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7월 18일
주식회사 네스트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동 1380-4 동평빌딩 2층
청산인 오광국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도시환경이엔지(갑)와 유주원회 주식회사(을)은 2009. 7. 17.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공고게제일 익일부러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계회사 주주께서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18.
갑: 주식회사 도시환경이엔지
광주 북구 용동동 971-24
이사:공용환
을: 유주원회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223-1
대표이사 박미애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3.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4. 교육기간: 2009년 9월 7일~12월 18일(15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실습70%, 이론30%)
5. 교육과정: 대학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6. 원서교부및등록기간
• 등록기간: 2009년 7월 13일(월)~8월 31일(월)
• 등록시간: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4층)
7. 등록비용(수강료: 200,000만원)
•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22-158135 (예금주: 광주대 평생교육원)
8.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장명의로),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파견,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및 사회진행자 추천
9. 담당교수: 한 상 태
- 한국음변연설인문학회 회장 - 제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설원 교수 - 대통령상 전국음변연설대회 대회본부장
- 각종 스피치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
- 기초광역의원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연설회 및 연설문 작성(30년)
- 사단법인 한국음변연설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웅변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13,200㎡ (약 4,000평)
■ 건물: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상담 후 결정
☎ 010-3617-8810

광주·전남권부동산
* 부동산 경매 취하금 변제 *
(경매 예정 또는 진행 부동산 상담)
* 부동산 담보 대출금 변제 *
(은행 또는 개인 대출 부동산 상담)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토지
* 경매 취하 부동산 급매 *
(감정가 15-50% 할인 매물 상담)
* 부동산 재테크 상담 *
금호부동산컨설턴트
☎ 224-5959 FAX 223-5151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 4가 36-3번지 201호